



Issue Briefing

EAI·SBS·중앙일보·한국리서치 공동 대선후보 지지 변동의 양상과 원인

2012년 12월 17일

이근수_EAI 거버넌스연구팀장
정원철_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

1. 높아지는 선거 관심도와 투표 의향

- 96.9%까지 치솟은 선거 관심도
- 박근혜 후보 지지자 반드시 투표하겠다 88.7%
- 문재인 후보 지지자 반드시 투표하겠다 91.3%

2. 유권자의 지지선택 변화

- 문재인 후보 지지율 8월 13.9% 12월 46.0%
- 박근혜 후보 지지율 8월 40.8% 12월 45.8%

3. 후보자 지지층의 변동

1) 세대별 변동

- 박근혜 후보 50대에서 2.3% p 상승
- 문재인 후보 30대에서 5.8% p 40대에서 4.1% p 상승

2) 거주지역별 변동

- 박근혜 후보 인천경기와 대구경북에서 상승세
- 문재인 후보 대전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율 40%대

3) 지지정당별 변동

- 더욱 견고해지는 지지정당별 지지세

4) 이념성향별 변동

- 보수와 중도층 지지율 견고한 박근혜 후보
- 진보와 중도층 지지율 확장한 문재인 후보

4. 대선후보의 호감도와 비토인식

- 호감도 점수, 문재인 후보 6.1점 박근혜 후보 5.5점

5. 차기정부의 우선 국정과제와 해결 후보

- 경제양극화 문제 27.9%에서 30.2%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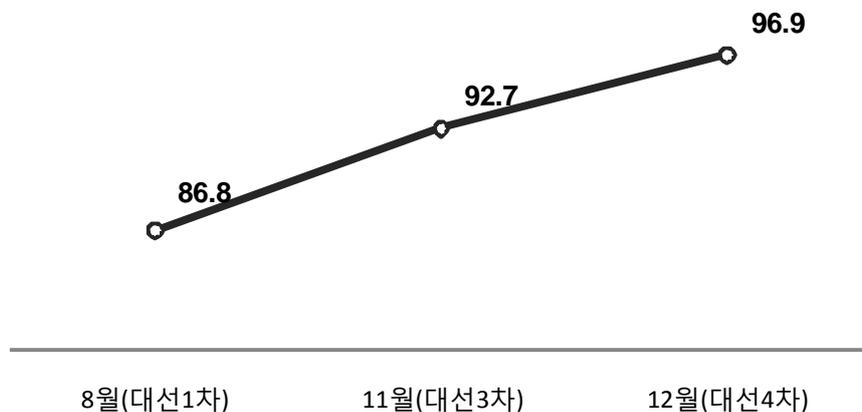
본 보고서의 자료는 <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> 제108조 “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” 준수를 위해 EAI·SBS·중앙일보·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“2012 대선패널 4차 조사”의 결과자료(참여 패널 1,412명) 중 11일과 12일의 결과자료(참여 패널 1,308명)만을 사용한 것임을 밝힙니다. 따라서 최종 조사결과는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1. 높아지는 선거 관심도와 투표 의향

- 96.9%까지 치솟은 선거 관심도

-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대선후보 TV토론이 이어지고 각 후보 진영의 선거캠페인이 치열해지면서 유권자 패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.
- 관심이 있다(매우 관심이 많다+대체로 관심이 있다)고 답한 응답비율만을 살펴보면, 지난 8월에 있었던 1차 조사에서는 86.8%였던 것이 11월에 있었던 3차 조사에서는 92.7% 그리고 이번 4차 조사에서는 96.9%로 높아졌다. 유권자 패널들이 이번 대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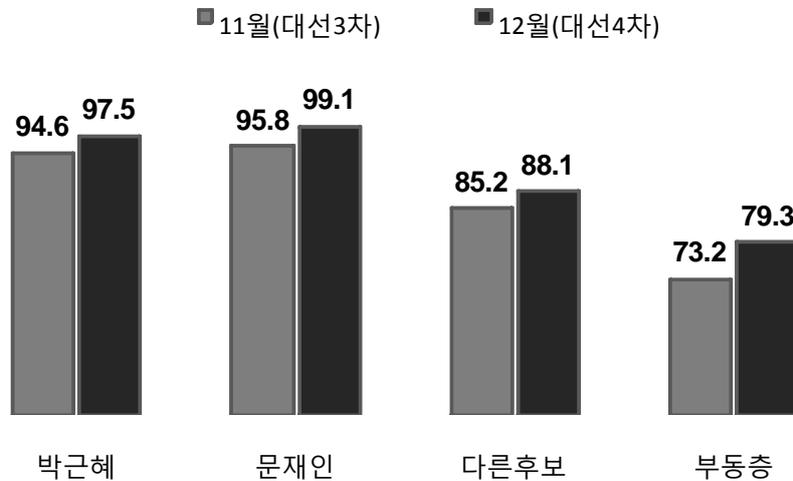
[그림1] 제18대 대선에 대한 관심도(%)



- 지지후보별 관심도 역시 11월 3차 조사와 비교하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중 관심이 있다(매우 관심이 많다+대체로 관심이 있다)고 답한 비율은 94.6%에서 97.5%로 높아졌다.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은 95.8%에서 99.1%로 높아졌다. 부동산에서의 관심도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. 부동산 중 이번 대선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 역시 73.2%에서 79.3%로 6.1% 포인트(p) 높아졌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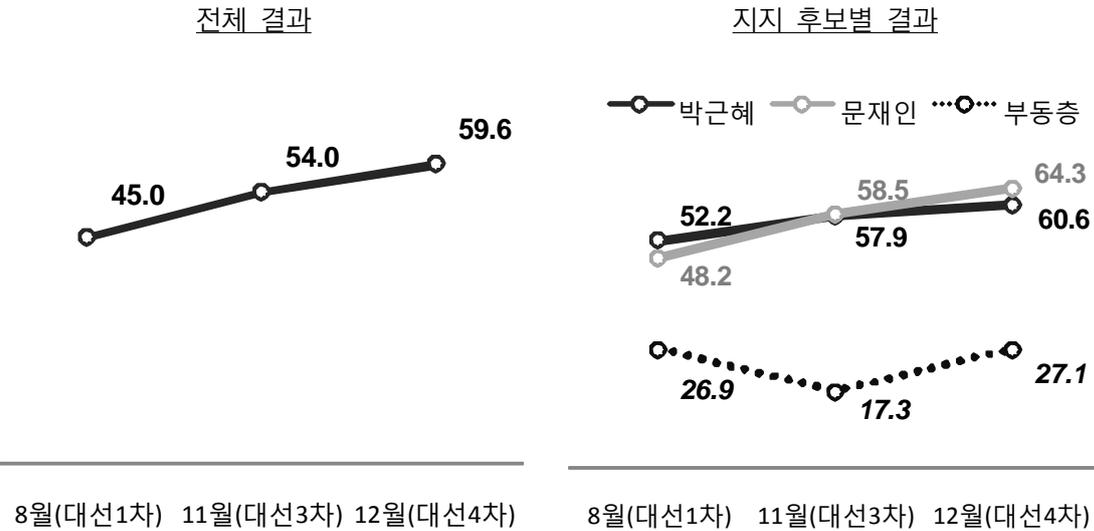
[그림2] 18대 대선 지지후보별 관심도 변화



- 매우 관심이 많다 8월 45.0%에서 12월 59.6%로 증가
 - 박근혜 후보 지지자 매우 관심이 많다 60.6%
 - 문재인 후보 지지자 매우 관심이 많다 64.3%
 - 부동층 중 매우 관심이 많다 27.1%
- 이번 대선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답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권자 패널들의 관심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. 전체 응답비율은 지난 8월 1차 조사에서 45.0%였던 것이 11월 3차 조사에서는 54.0%로 증가했고 이번 4차 조사에서는 59.6%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 - 지지후보별 매우 관심이 많다는 응답비율 역시 증가하였다.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중 이번 대선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답한 비율은 1차 조사에서 52.2%였던 것이 이번 4차 조사에서는 60.6%로 8.4% 포인트(p) 증가했다.
 -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증가하여 1차 조사에서 48.2%였던 것이 4차 조사에서는 60.6%로 12.4% 포인트(p)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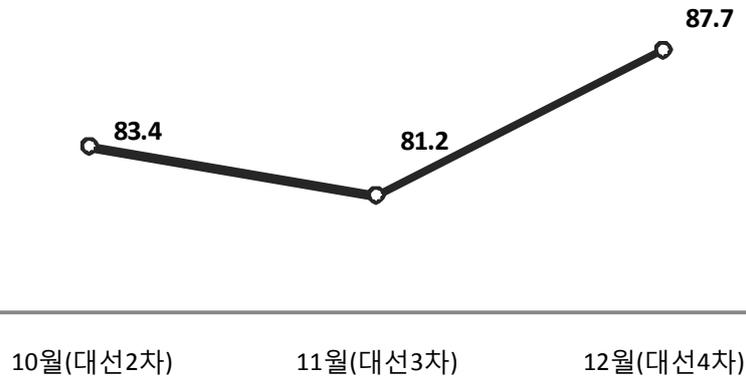
[그림3] 매우 관심이 많다는 응답비율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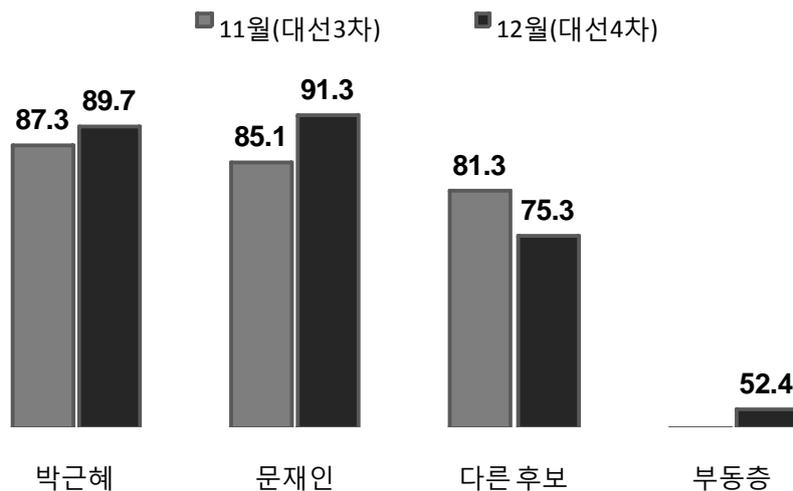
- 반드시 투표하겠다 10월 83.4% 12월 87.7%
 - 박근혜 후보 지지자 반드시 투표하겠다 88.7%
 - 문재인 후보 지지자 반드시 투표하겠다 91.3%
 - 부동층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 52.4%
- 투표의향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. 지난 10월 2차 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3.4%였던 것이 11월 3차 조사에서는 81.2%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번 4차 조사에서는 87.7%로 반등하였다.
 - 지지후보별로 보면, 박근혜 후보 지지층에서 11월 3차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87.3%였으나 이번 4차 조사에의 응답비율은 88.7%로 증가하였다.
 -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의 응답비율은 박근혜 후보 지지층에서의 결과보다 더 크게 상승하였다. 지난 3차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85.1%였으나 이번 4차 조사에서의 응답비율은 91.3%였다. 문재인 후보 지지층의 결집도가 박근혜 후보 지지층의 결집도와 비교하여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.



[그림4] 적극 투표의사층 비율 변화(%)



[그림5] 지지후보별 적극 투표의사층 비율 변화(%)



2. 유권자의 지지선택 변화

- 문재인 후보 지지율 8월 13.9% 12월 46.0%
- 박근혜 후보 지지율 8월 40.8% 12월 45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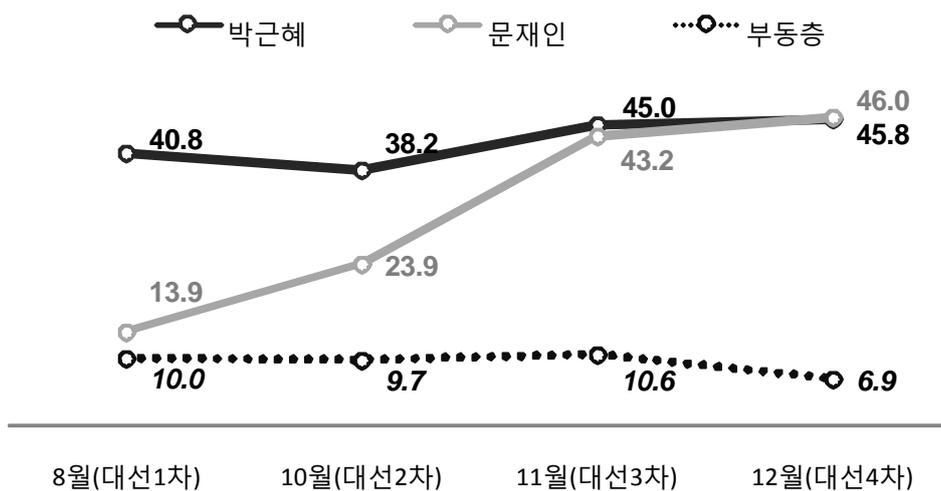
-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박빙상태에 있었다.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46.0%였고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45.8%였다.
- 두 후보 간 지지율 변화를 살펴보면, 우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박근혜 후보의 지



지율 상승세와 비교하여 더욱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. 다자대결 구도 하에서의 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8월 1차 조사에서는 13.9%에 불과했다. 10월 2차 조사에서는 23.9%로 상승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과는 여전히 큰 격차로 뒤지고 있는 상태였다. 11월 3차 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1.9% 포인트(p)로 좁힌 43.2%로 나타나면서 박빙의 승부가 시작되었고 이번 4차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46.0%로 높아졌다.

-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비교적 큰 격차 없이 안정적인 구도를 유지했다. 1차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40.8%였고 2차 조사에서의 지지율은 38.2%였다.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하고 진행된 11월 3차 조사에서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5.0%로 상승했으나 이번 4차 조사에서는 지지율 상승세가 정체된 45.8%였다.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은 대단히 안정적이면서 견고하기까지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지지층의 확장력에는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.

[그림6] 유권자 지지선택의 변화



3. 후보자 지지층의 변동

1) 세대별 변동

- 박근혜 후보 50대에서 2.3% p 상승
- 문재인 후보 30대에서 5.8% p 40대에서 4.1% p 상승
- 세대별로 보면, 4차 조사결과를 3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,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0대에서 2.3% 포인트(p) 증가하였다. 반면 40대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0.5% 포인트(p) 감소하였다.



-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30대와 40대에서 높아졌다. 30대에서는 지난 3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5.8% 포인트(p) 그리고 40대에서는 4.1% 포인트(p)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.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60세 이상에서도 나타났다. 지난 3차 조사에서 20.4%였던 지지율이 이번 4차 조사에서 23.0%로 2.6% 포인트(p) 높아졌다.

[표1] 세대별 지지율 변동(%)

박근혜	11월	12월	증감	문재인	11월	12월	증감
20대	25.9	27.5	1.6	20대	58.1	58.8	0.7
30대	32.8	33.5	0.7	30대	51.5	57.3	5.8
40대	35.9	35.4	-0.5	40대	52.6	56.7	4.1
50대	58.2	60.5	2.3	50대	33.0	33.7	0.7
60세이상	72.3	72.5	0.2	60세이상	20.4	23.0	2.6

2) 거주지역별 변동

- 박근혜 후보 인천경기와 대구경북에서 상승세
- 문재인 후보 대전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율 40%대
-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, 박근혜 후보는 박 후보의 정치적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의 지지세 상승도 나타났다. 그러나 대전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지지세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- 문재인 후보의 지지세는 대전충청지역과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지지율 40%대를 넘기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비교적 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.

[표2] 거주지역별 지지율 변동(%)

박근혜	11월	12월	증감	문재인	11월	12월	증감
서울	42.8	44.6	1.8	서울	43.3	45.2	1.9
인천경기	39.0	42.5	3.5	인천경기	46.4	49.6	3.2
대전충청	50.5	46.4	-4.1	대전충청	39.2	42.4	3.2
광주전라	18.4	16.3	-2.1	광주전라	71.1	74.5	3.4
대구경북	67.7	70.6	2.9	대구경북	22	24.3	2.3
부산경남	54.8	52.1	-2.7	부산경남	38.1	41.5	3.4
강원제주	54.4	59.3	4.9	강원제주	33.6	36.1	2.5



3) 지지정당별 변동

- 더욱 견고해지는 지지정당별 지지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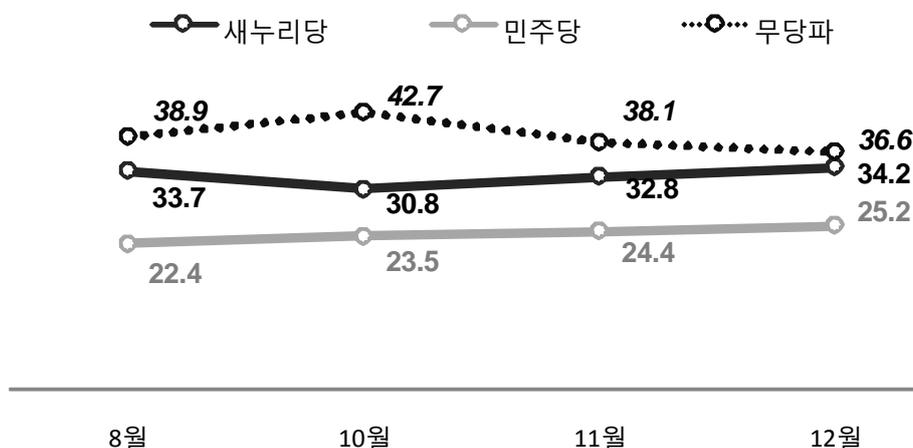
-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, 박근혜 후보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다른 지지층에서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무당파의 지지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세와 더불어 무당파에서 5.8%의 지지상승 효과를 거두었으나 통진당 지지층에서는 5.9%의 지지세 하락을 나타냈다.

[표3] 지지정당별 지지율 변동(%)

박근혜	11월	12월	증감	문재인	11월	12월	증감
새누리	94.3	95.8	1.5	새누리	3.5	2.9	-0.6
민주통합	7.1	6.8	-0.3	민주통합	87.7	92.5	4.8
통합진보	19.5	14.8	-4.7	통합진보	64.4	58.5	-5.9
다른정당	23.9	5.3	-18.6	다른정당	76.1	94.7	18.6
무당파	29.6	29.5	-0.1	무당파	45.6	51.4	5.8

- 정당별 지지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화되었지만 두 정당 모두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. 단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민주통합당의 지지율과 비교하여 10% 포인트(p) 가량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. 새누리당 지지세가 민주당 지지세보다 대선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. 반면 무당파의 비율은 10월 2차 조사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. 후보 간 결집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판세변화의 가능성 역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[그림7] 지지정당별 지지율 변동(%)



4) 이념성향별 변동

- 보수와 중도층 지지율 견고한 박근혜 후보
 - 진보와 중도층 지지율 확장한 문재인 후보
- 이념성향별 지지율 변동을 살펴보면, 박근혜 후보는 중도와 보수층에서 담보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은 약화되었다. 문재인 후보는 진보층의 지지강화 속에서 중도층에서 50% 이상의 지지율 상승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의 지지율도 11월 3차 조사에서와 비교하여 2.8% 포인트(p) 상승한 24.3%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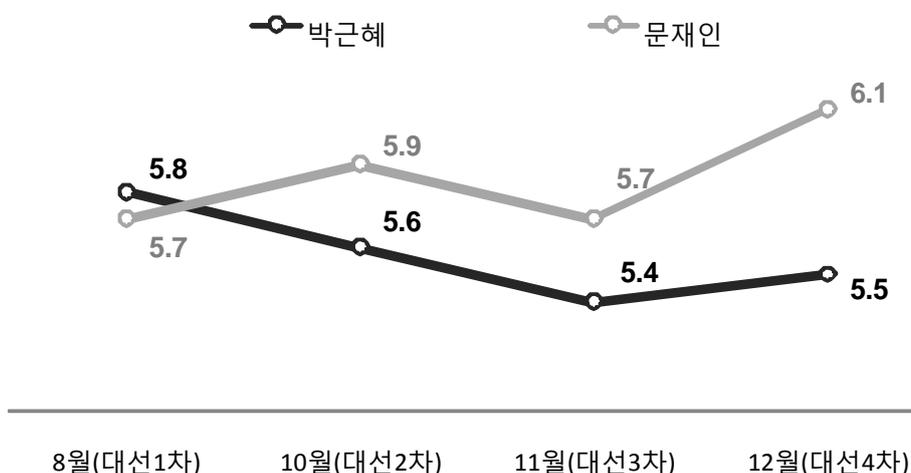
[표4] 이념성향별 지지율 변동(%)

박근혜	11월	12월	증감	문재인	11월	12월	증감
진보	20.4	18.1	-2.3	진보	68.8	76.5	7.7
중도	36.6	38.1	1.5	중도	48.3	51.9	3.6
보수	70.3	71.3	1.0	보수	21.5	24.3	2.8

4. 대선후보의 호감도와 비토인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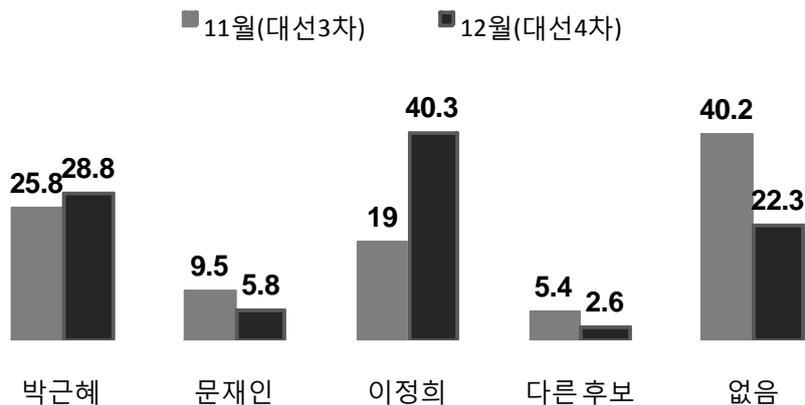
- 호감도 점수, 문재인 후보 6.1점 박근혜 후보 5.5점
- 대선후보의 호감도에 있어서도 문재인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6.1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박근혜 후보는 5.5점을 거둬 이미지 변화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[그림8] 후보호감도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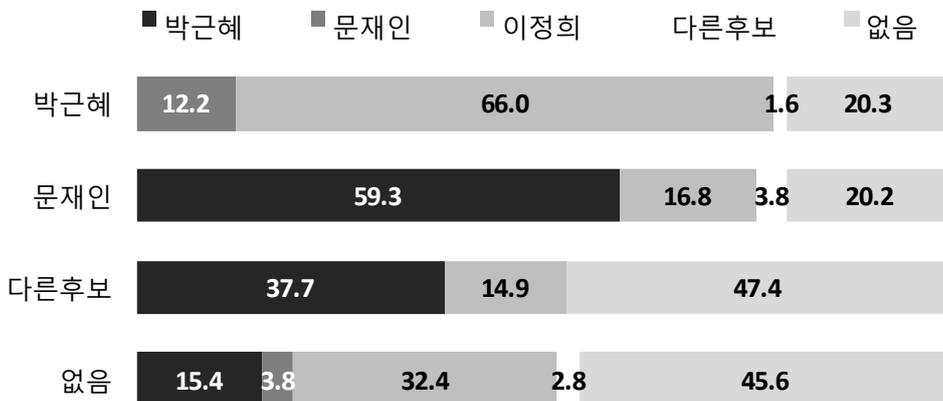


- 당선되어서는 안 될 후보, 박근혜 28.8% 문재인 5.8%
 - 부동층. 박근혜 15.4% 문재인 3.8%
 - 박근혜 지지자 중 문재인 비율 12.2%
 - 문재인 지지자 중 박근혜 비율 59.3%
- 당선되어서는 안 될 후보 조사결과에서 박근혜 후보를 꼽은 응답비율은 28.8%로 지난 11월 조사 대비 3.0% 포인트(p)가 높아졌다. 반대로 문재인 후보는 꼽은 응답비율은 5.8%로 지난 조사 대비 3.7% 포인트(p) 감소하였다.
 - 박근혜 후보 지지층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은 12.2%인데 반해,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59.3%로 높게 나타났다. 그리고 부동층에서도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토층, 즉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이 15.4%로 문재인 후보라고 답한 비율(3.8%)보다 4배가량 높았다.

[그림9] 당선되어서는 안 될 후보의 응답비율 변동(%)



[그림10] 지지후보별 당선되어서는 안 될 후보의 응답비율 변동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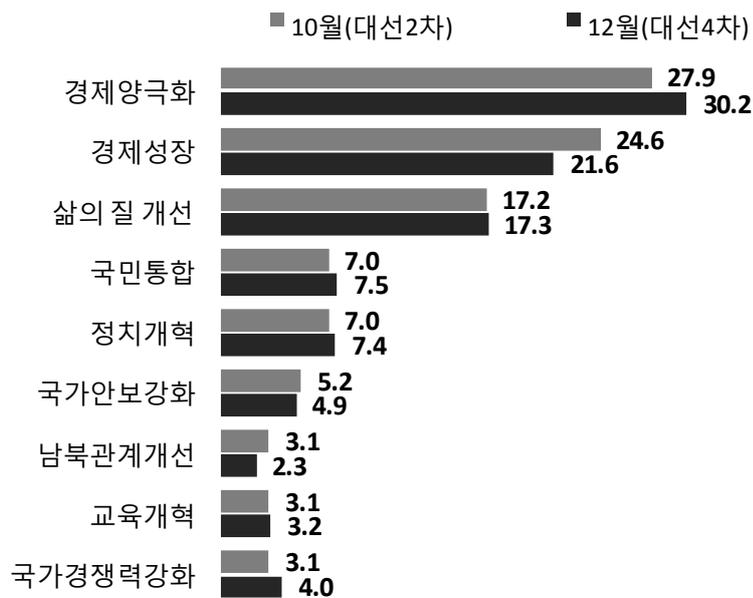


5. 차기정부의 우선 국정과제와 해결 후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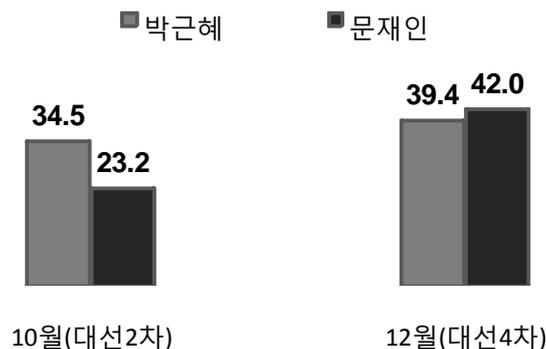
- 경제양극화 문제 27.9%에서 30.2%로

-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경제양극화 문제에 대한 비중은 더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비중은 줄어든 양상을 나타냈다.
- 이러한 인식변화가 경제양극화에 강점을 보이는 문재인 후보가 경제성장에서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박근혜 후보와 초박빙의 대결을 펼치게 한 원인들 중 하나로 이해된다.

[그림11]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인식(%)



[그림12] 차기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해결 후보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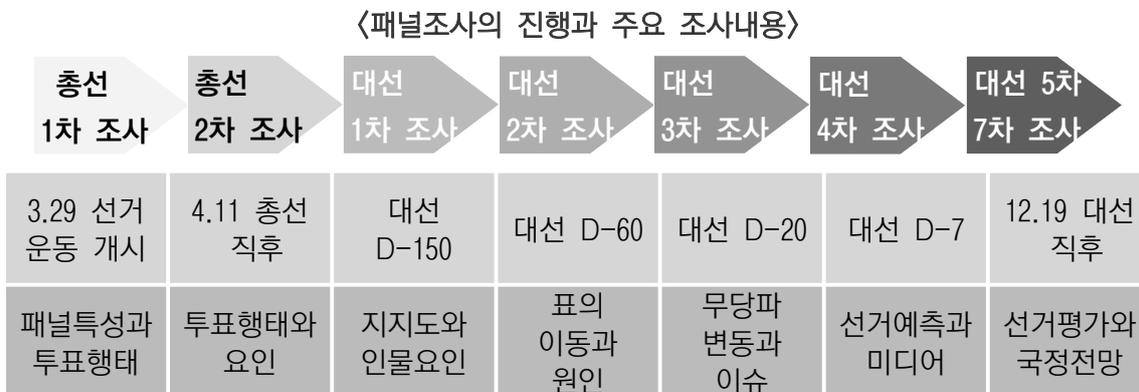


EAI · SBS · 중앙일보 · 한국리서치 공동 "2012 총선 · 대선 패널조사"

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· 중앙일보 ·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.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번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. 개별 유권자의 태도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

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· 중앙일보 ·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,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. EAI는 SBS · 중앙일보 ·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“2012 대선패널조사”를 진행한다.

EA · SBS · 중앙일보 ·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(wave)를 진행한다.



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

- 위원장 :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(고려대)
- 연구진 : 강원택(서울대) · 권혁용(고려대) · 김성태(고려대) · 김준석(동국대) · 박원호(서울대) · 박찬욱(서울대) · 서원진(성신여대) · 윤광일(숙명여대) · 이곤수(EAI) · 이우진(고려대) · 이현우(서강대) · 임성학(서울시립대) · 장승진(국민대) · 정원철(EAI) · 정한울(EAI) · 지병근(조선대)
- 언 론 : 신창운(중앙일보) · 현경보(SBS)
- 조사팀 : 김춘석 · 오승호 · 유석상 (이상 한국리서치)

대선4차 패널조사 개요

조사일시	2012년 12월 11 - 12일 (2일간)
표본크기	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,308명
표본추출	지역 · 성 ·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(학력/직업/자가소유 비율 반영)
표집오차	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% 신뢰수준에서 ±2.7%
패널유지율	65.4% (최초 패널 2,000명 기준, 13일 조사결과 포함시 증가)

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.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,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(02-2277-1683 내선102, 010-4280-3230, hwjeong@eai.or.kr)

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(02-2277-1683 내선105, 017-279-4536, cwc@eai.or.kr)

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(02-3014-0082/016-9525-8416/cskim@hrc.co.kr)



2012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

- 117호 “여론으로 본 경선국면 전환기의 대선구도 평가” 정한울. (2012. 7. 1)
 118호 “안철수 현상의 진화? 안철수 바람의 연속성과 차별성” 정한울. (2012. 7. 29)
 119호 “박근혜 현상 vs 안철수 현상의 충돌 : 지지요인 및 후보 이미지 포지셔닝 맵” 정한울. (2012. 9. 2)
 120호 “새누리당 경선 직후 조사의 주요결과” 정원철 · 이근수 2012-09-07
 121호 “안 출마 이후 선거구도 변화: 당선가능성은 안철수, 단일후보는 안·문 팽팽” 정한울. (2012. 9. 23)
 122호 “2012 대선2차 패널조사 유권자 지지행태 변동의 크기와 원인” 이근수 · 정원철. (2012. 10. 21)
 123호 “2012 대선2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” 정원철. (2012. 10. 25)
 124호 “세 후보 약점이 공존하는 균형 : 후보등록 한 달 전 대선여론” 정한울. (2012. 10. 28)
 125호 “단일화 파행의 결과 : 부동산 늘고, 안 하락·문 지지강도 약화 ” 정한울. (2012. 11. 18)
 126호 “대선3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” 정원철. (2012. 11. 30)
 127호 “야권후보 단일화 이후 유권자 패널의 지지 변동” 이근수 · 정원철. (2012. 12. 1)

2012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

- 2012-10호. “제18대 대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의 전망과 한계” 장승진. (2012. 10. 21)
 2012-11호. “수도권 4대 무당파의 대선경쟁 한 달 평가: 기대와 실망의 공존” (FGD결과 분석) 장한울. (2012. 10. 29)
 2012-12호. “2012 삼국지 최종 승자 결정할 세대변수 점검” 정한울. (2012. 10. 29)
 2012-13호. “안 확장성의 격차 요인과 새누리당 지지층의 역선택 경향 변화” 정한울. (2012. 11. 7)
 2012-14호. “2012 대선 가를 스윙보터(Swing Voter)의 표심은?” 정한울. (2012. 11. 18)
 2012-15호. “2012 대선 여론조사, 무엇이 문제인가?” 정한울. (2012. 11. 18)
 2012-16호. “안철수 사퇴 이후 안철수 지지자의 표심변화” 정한울. (2012. 12. 1)
 2012-17호. “2012 대선 변수 : 박근혜 박빙 우위 지속될까?” 정한울. (2012. 12.10)

2011년 EAI 여론분석 단행본 시리즈

- 여론분석6. 이내영·임성학(공편) 《변화하는 한국유권자4: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》 서울: EAI
 여론분석7. 강원택·이내영(공편) 《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?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》 서울: EAI

